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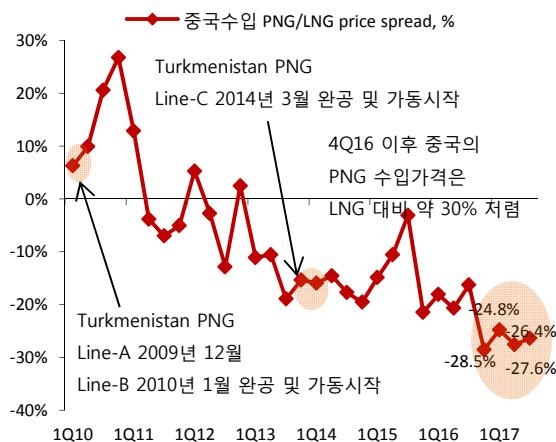
# Issue Comment

- ✓ 미국산 LNG 공급으로 러시아 가스 사업 타격 전망 보도
- ✓ PNG는 LNG 대비 30%나 저렴하기에 중국은 PNG를 선택
- ✓ 러시아도 **對중국 PNG 프로젝트를 촉진하고 있음**

## 러시아의 **對중국 PNG 프로젝트 촉진**

지난 10월 29일에 미국산 LNG 가 쏟아져 나오며 러시아의 가스 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의 **보도**가 있었다. 미국이 수출하는 LNG의 대부분을 유럽이나 중국이 받아가며 러시아가 위기에 빠진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SK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 7월 3일 'Global New Energy Roadmap Episode II: 남쪽 나라 LNG의 위기, 그리고 조선 이야기' 자료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의 PNG 거래 규모가 커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이유로 PNG의 가격 메리트를 꼽았다. 실제로 2016년 4분기 이래로 중국이 수입하는 PNG의 가격은 LNG 수입가 대비 약 30% 가량 저렴하다. PNG 수입량이 늘어나며 규모의 경제 효과로 가격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의 움직임에서도 중국의 러시아 PNG 수입이 늘어날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9월에 러시아 Gazprom은 중국으로 공급하는 '실라 시비리'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앞당겨 연말까지 1,300km 구간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이다. 가스를 내다 파는 러시아나 들여오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비싼 LNG 보다는 저렴한 PNG 사업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 중국의 PNG, LNG 수입가격 차이는 PNG가 30%나 저렴함



### 러시아는 중국으로의 PNG 수출을 서두르는 중임

#### 러시아, **對중국 가스 파이프라인 가속페달**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중국에 공급되는 실라 시비리(Sila Sibiri) 파이프라인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략)...러시아 가즈프롬은 **對중국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동부노선인 실라 시비리 가스관** 중 663km 구간을 연내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건설계획을 앞당겨 연말까지 1300km 구간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9.11 이투뉴스 발췌

자료 : KITA, SK 증권

자료 : 이투뉴스,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